



## 이낙연 광주 출마 공식화...지역 총선판 파급 촉각

### 총선 D-36

“출마지역 협의 이후 곧 발표”...서구를 유력 전망  
“민주당, 검찰정권 견제·심판 어려워” 비판 쏟아내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제22대 총선 광주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일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를 계기로 지역 총선판이 요동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과대한민국의 새로운미래를 위해 제22대 총선 광주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일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대표의 광주 출마를 계기로 지역 총선판이 요동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이낙연은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했다”며 “광주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에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의 출마 선거구로는 광주 서구율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을 지역민에 대한 사과에 할애했다. 그는 “먼저 광주·전남의 많은 분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완벽주의자인 저로 인해 일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에게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도 거듭 사과드립니다”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실패해 상심하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민주당을 나와 당원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린 것이 몹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10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경제는 성장이 멎고, 무역에서도 적자를 내게 됐다”며 “안보를 큰소리지지만, 전쟁을 걱정할 만큼 불안하고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그리고 대통령 내외의 말과 행동이 나라 안팎에 실망을 주며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119대 29, 부산엑스포 유치 실

패는 국격 추락의 참담한 결과였다”고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무능하고 해이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려면 야당이 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도덕적, 법적 문제로 정권 견제도, 정권 심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듯이 민주당이 검찰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는 어렵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최근 표출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 갈등과 관련, 이 대표는 “민주당의 변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민주당 40년 역사에서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다.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다”고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광주시민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광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만 빼고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했다. 그러면 광주는 큰 정치인을 가질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좋은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싹을 자른다면,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강기자

## 무안공항 8개 정기노선 뜬다

제주·장가계·연길·다낭·울란바토르·마닐라·라오스 취항

올해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내·국제선 8개 정기노선이 운항한다. 전남도는 4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표격인 진에어,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국제 정기노선을 4·5월부터 운항하게 돼 서남권 거점공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별 정기노선은 ▲4월 제주항공 무안-장가계(주 4회)·무안-연길(주 2회)·무안-다낭(주 2회), 로얄에어필리핀 무안-마닐라(주 2회) ▲5월 진에어 무안-제주(주 2회)·무안-울란바토르(주 2회) ▲6월 훈누항공 무안-울란바토르(주 2회) ▲9월 라오항공 무안-라오스(주 2·4회) 등 8개 노선이다. 이는 전남도가 코로나 일상회복(엔데믹) 이후 전국 국제공항 중 국제 정기노선 및 국내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진에어,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결실이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국제 정기선 운항 계획이 있는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연초 항공사 맞춤형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 지원을 운항장려금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정기선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장래 이용객 편의 증진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서남권 협의체 구성,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무안국제공항에 정기노선 운항을 결정해 준 항공사에 감사드립니다”며 “국토교통부, 국내외 항공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내·국제 정기노선확장과 공항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Today**  
“선분양가 1천900만원도 가능” 2면  
전임의도 떠나...커지는 의료공백 6면  
우학소...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9면



2주째 접어든 전공의 근무 중단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 돌입된 가운데 4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현장점검 부재 확인후 오늘 처분 사전통보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게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에 점검해 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

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2024. 3. 30(토) 오전 8시 30분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40분

**집결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또는 모바일 접수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참가비** 무료

걷기대회 모바일접수